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전승훈*

요약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초과노동수요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외국인노동자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39조 9,464억원 국가 전체 총산출액 대비 약 1.28% 수준이며,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총 11조 6,577억원 국가전체 총산출액 대비 1.15%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의 대체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1인당 8,190만원의 생산과 3,50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지만,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은 1인당 5,750만원의 생산과 1,85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노동자 1인당 생산효과는 약 1억 2,97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080억원으로 측정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납부세금 이상의 공공재와 복지급여를 누려 재정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는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 중심의 유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요어 외국인노동자, 산업연관분석,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본 논문에 대해 세심하게 논평해 주신 3인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 대구대, 경제학, jsh1105@daegu.ac.kr

1. 문제제기

2012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약 144.5만명으로 총 인구 5,094.8만명 대비 약 2.84%에 달한다. 그리고 체류 외국인 중 약 36.65%에 달하는 53.0만명이 취업자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중 불법체류외국인의 상당수가 취업 상태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상태에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취업자격이 있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인 등 총 6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내국인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¹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중 하나인 고령화와 관련되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는 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관련하여 An and Jeon(2006)은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하다가, 노인 인구의 비중이 대략 7%를 넘어서는 시점, 즉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점차적으로 성장이 둔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실증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공급의 감소에 따른 성장둔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인적자본투자의 증가이다. 노동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그를 통해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둔화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Boerch-Supan(2001)이 독일의

1 산업연수생제도는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3년 11월 도입되었으며,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함께 시행되다가 2007년 1월 1일부로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이다.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 이후 시행되고 있다. 방문취업제도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하여 방문 및 취업상의 편의를 도모한 제도로 2007년 3월 처음 도입되었다.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적자본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여 성장률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노동력 감소로 인한 성장을 하락효과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비롯한 이민정책은 고령화로 인해 감소한 노동공급 자체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규모가 커지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공급이 정책당국에서 바라는 바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숙련도가 떨어지는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유의한가에 대한 분석도 강동관·이해춘·이규용(2011), 강동관·문석웅·이해춘(2012), 전영준(2012) 등 몇몇 연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²

외국인노동자의 국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산업연관분석과 일반균형모형 분석이다. 기존 연구 중 강동관·이해춘·이규용(2011)의 경우 산업연관모형을 사용하고 있고, 강동관·문석웅·이해춘(2012), 전영준(2012) 등은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각자 장단점을 갖고 있다. 산업연관분석은 경제 내에서 투입과 산출 혹은 총공급과 총수요가 일치한다는 완전경쟁균형을 전제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구조 분석방법이다. 각 산업별 투입요소의 변화 및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

2 외국인노동자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한다.

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경제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연관분석은 각 산업별로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투입물(원재료)과 원초적 생산요소(노동, 자본), 그리고 각 산업별 생산물에 대한 산업별 중간수요와 최종수요가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어, 투입물간 혹은 특정 재화 수요 간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반면 일반균형모형은 각 산업 생산물의 투입과 노동 및 자본으로 구성된 생산함수에서 생산요소의 대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부문,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의 동시적인 균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산업연관분석모형에 비해 발전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영준(2012)의 모형은 생애주기모형에 기초하여 동태적인 효과까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균형모형은 분석을 위한 각종 파라미터를 개인 연구자 차원에서 추정하여 사용하거나, 외국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 모형의 안전성, 현실 적용 가능성, 결과의 신뢰성 등의 면에서 강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주무현 외, 2010). 이와 같은 장·단점을 고려할 때 산업연관분석과 일반균형분석은 서로 대립적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론 중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되,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강건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동일하게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고 있는 강동관·이해춘·이규용(2011)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가용한 최근 자료인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강동관·이해춘·이규용(2011)은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는 고용증가로 인한 효과와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 소비지출을 산업별로 배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강동관·이해춘·이규용(2011)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

는 소비지출의 산업별 배분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경제적 효과 분석이 보다 정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논의를 검토한 후,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노동자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이때 외국인노동자를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내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글을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1) 이론적 논의

경제학적 측면에서 외국인노동력 유입은 주로 신고전경제학 경제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노동과 자본의 이동의 제한이 없는 경우 한계생산성과 일치하는 보수가 지급된다면, 생산요소는 한계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한계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반면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투입중심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높고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낮아진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자본은 풍부한 반면 노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투입중심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고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높아진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이동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노동이동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이 서로 수렴하면서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 볼 때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은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별 경제행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노동력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재율(2011)은 외국인노동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내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 소비자, 재정,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외국인노동력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다.³ 첫째, 외국인노동자가 내국인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입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단순기능인력이 유입될 경우 해당 부문 노동공급의 증가에 따라 내국인노동자의 구직활동이 어려워지고, 임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임금하락으로 인해 내국인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를 합한 전체 단순기능인력의 수가 증가할 경우, 이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내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경우 오히려 고용 및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의 도입은 내국인 단순기능인력과 내국인 전문인력 간 소득격차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외국인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면서 고용과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때 추가적인 생산의 일부는 노동분배 몫으로 분배되고 그 나머지는 자본분배 몫으로 분배된다. 즉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들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비자잉여가 증가할 수 있다.⁴ 넷째, 재정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납부세금 이상의 공공재와 복지급여를 누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소 부정적일 수 있다. 단, 전영준(2012)의 연구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단순

3 이하의 논의는 이재율(2011)의 논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4 이재율(2011)은 외국인노동자가 없을 경우 경쟁력을 잃고 수입품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재화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생산·판매될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혜택을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생산되는 재화는 가격경쟁력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되지만 가격경쟁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이 있는 수입품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므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능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세와 소비세를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크기가 크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경제에서 총노동공급이 증가할 경우 총생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소비되면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가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승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총생산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이윤과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숙련도에 따라 내국인노동자 및 재정에 다소 상이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역시 내국인노동자와의 대체성이 높다면 외국인노동자 유입이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 유입과 관련된 정책을 고려할 때에는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한 실증적인 분석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2) 실증분석 결과⁵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거시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와,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 간의 대체성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Walmsley, and Winters(2005), Walmsley, Ahmed, and Parsons(2009) 등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멕시코 등을 대상으로 노동력 3%에 상당하는 규모의 외국인노동력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멕시코를 제외할 경우 단순노동력이 3% 증가할 때 실질 GDP가 1% 내외 수준에서 증가하

5 국외 연구 관련 내용은 강동관 외(2011)를 일부 참고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련노동력이 3% 증가할 때에는 실질 GDP가 0.6% 내외 수준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중국과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노동력 유입에 따라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나라가 외국인노동력 수출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볼 때 노동생산성이 낮은 노동력 수출국에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더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이 유입될 때 내국인 단순기능인력의 실질임금은 감소하지만 전문인력의 실질임금은 증가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이 유입될 때 내국인 단순기능인력의 실질임금은 증가하지만 전문인력의 실질임금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국인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 간에는 숙련도가 같을 경우에는 대체관계가 존재하고 숙련도가 다를 경우에는 보완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 간의 대체성에 관련된 연구는 Grossman(1982), Borjas(2003), Bratsberg et al(2010) 등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 간 대체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수준이 아주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Borjas(2003)에서는 미국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노동이 1% 증가할 때 내국인노동자의 임금이 약 0.051%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를 대상으로한 Bratsberg et al(2010)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내국인노동자의 대체탄력성은 -0.028 로 아주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거시경제적 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강동관·이해춘·이규용(2011), 강동관·문석웅·이해춘(2012), 전영준(2012) 등이 있다. 강동관·이해춘·이규용(2011)은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연관 분석을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6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실질GDP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나, 이들의 경우 노동력이 1.5% 증가할 때를 가정한 분석결과이다. 따라서 노동력 증가에 따라 실질 GDP가 선형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다른 나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

표 1. 각국의 이민에 의한 거시경제효과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멕시코
실질GDP	단순	0.99	1.08	1.01	0.93	1.04	0.40	0.39	-0.04	-0.47
	숙련	0.71	0.53	0.71	0.60	0.63	0.30	0.19	-0.13	-0.92
실질수출	단순	1.61	1.18	1.40	0.81	0.32	0.11	0.33	0.31	0.58
	숙련	1.08	0.62	0.88	0.58	-0.39	-0.20	-2.99	0.05	-1.05
실질수입	단순	0.27	1.22	0.78	1.03	1.18	0.35	0.38	-0.14	-0.26
	숙련	0.13	0.56	0.47	0.57	0.80	0.29	-0.34	-0.17	-0.48
투자	단순	0.63	1.33	0.82	1.31	1.64	0.56	0.54	-0.61	-1.64
	숙련	0.35	0.34	0.53	0.57	1.14	0.74	-0.84	-0.41	-1.35
실질임금 (단순)	단순	-1.51	-1.45	-1.37	-1.58	-1.41	-0.61	-0.67	-0.01	1.37
	숙련	0.46	0.29	0.43	0.34	0.33	0.19	2.50	-0.09	-0.50
실질임금 (숙련)	단순	0.63	0.71	0.68	0.57	0.56	0.32	0.27	-0.08	-0.11
	숙련	-1.68	-1.86	-1.69	-1.77	-1.62	-0.69	-0.31	0.79	7.89

주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1.5%의 노동력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을 경우, 나머지 국가들은 3%의 추가적인 노동력이 도입되었을 경우의 경제적 효과임

자료: Walmsle and Winters(2005), Walmsley, Ahmed, and Parsons(2009)로부터 재구성, 강동관·이해춘·이규용(2011)에서 재인용

과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총생산유발효과는 약 29.5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9.9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의 약 1.08%, 전체 부가가치의 약 0.9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숙련도 별로 보면 외국인 전문직노동자는 4조 4,950억원의 총생산과 1조 9,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경우 25조 10억원의 총생산과 7조 9,45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력 비율은 내국인노동자의 3.86%인 데 비해 외국인노동자의 생산유발액 내국인노동자 생산유발액의 2.22%, 외국인노동자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내국인노동자 부가가치 유발액의 5.77%로 측정되었다. 저자들은 생산유발효과가 노동자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노동자비율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근거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노동자비율이 0.43%인데 비해 생산유발효과비율은 0.32%,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0.84%라는 분석결과를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노동자 1인당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동관·문석용·이해춘(2012) ORANI-F(Horridge et al., 1993) 모형을 한국의 투입산출표 구조에 맞도록 수정한 모형을 이용한 CGE(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분석을 통해 외국인 노동공급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08년 기준, 숙련외국노동자의 고용이 5~20% 증가할 경우, 총 고용증대는 0.022~0.89%, 실질민간소비와 실질수출은 각기 0.009~0.036%, 0.015~0.062%, 총조세수입은 0.003~0.011%, 실질정부지출은 0.009~0.036%, 실질GDP는 0.011~0.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 외국노동자의 경우 고용이 5~20% 증가할 경우 총고용증대는 0.183~0.641%, 실질임금은 0.170~0.593% 감소, 실질민간소비와 실질수출은 각기 0.04~0.17%, 0.16~0.592% 증가, 총조세수입은 0.040~0.145%, 실질정부지출은 0.048~0.107%, 실질GDP는 0.094~0.3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숙련노동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작게 나타난 것은 숙련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이다.

전영준(2012)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 유입이 장기적으로 GDP와 1인당 GDP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성장둔화 문제가 일정수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생산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유입 외국인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전영준(2012)은 장기적으로 볼 때 초과수요 상태인 비숙련노동자 확보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높은 생산성이 기대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간 대체성에 관한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체성을 찾아보기 어렵거나, 대체성이 있더라도 그 수준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준모(2004)는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기업 단위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와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진희·최용석(2006)은 1997~2001년 기간 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 부문 내국인노동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 반숙련(semi-skilled)노동자의 상대적 고용비용은 산업연수생 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이규용 외(2008)은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이 다수 취업해 있는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가사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가 내국인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일정 정도 대체관계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유경준·이규용(2009) 역시 외국인노동자가 내국인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규용 외(2008)과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김정호(2009)는 2004~2005년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 인력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추정한 결과, 사업장 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 고용이 대체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직종 근로자 중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10% 상승할 때 내국인노동자의 월별 실직위험이 0.12~0.2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경수(2011)는 외국인 단순 기능 인력의 유입이 미약하나마 내국인 전문 인력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내국인 단순 기능 인력의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의 대체효과가 작다는 것은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내국인노동자의 노동공급 감소로 인해 상쇄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3. 외국인노동 현황

2012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44.5만명으

로 총 인구 5,094,8만명 대비 약 2.84%에 달한다. 체류외국인 중 등록외국인은 약 93.3만명이며,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는 약 18.8만명, 그리고 단기체류자는 약 32.5만 명이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난 10여년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1년 약 56.7만명(총인구대비 1.18%)이었던 체류외국인 수는 2001~2012년 기간 중 연평균 8.8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체류외국인 중 빠른 증가추세를 보인 것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와 등록외국인의 수이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경우 2001년 1.5만명에서 2012년 93.3만명으로 연평균 26.02% 증가하였으며, 등록외국인 역시 2001년 23.0만명에서 2012년 93.3만명으로 연평균 13.59% 증가하였다. 반면 단기체류자의 수는 2001년 32.2만명에서 2012년 32.5만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등록외국인수와 외국국

표 2.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명, %)

	총인구	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단기체류자
2001	48,021,543	566,835 (1.18)	229,648	14,736	322,451
2002	48,229,948	629,006 (1.30)	252,457	19,209	357,340
2003	48,386,823	678,687 (1.40)	437,954	22,307	218,426
2004	48,583,805	750,873 (1.55)	468,875	22,534	259,464
2005	48,782,274	747,467 (1.53)	485,144	25,365	236,958
2006	48,991,779	910,149 (1.86)	631,219	29,388	249,542
2007	49,268,928	1,066,273 (2.16)	765,746	34,516	266,011
2008	49,540,367	1,158,866 (2.34)	854,007	41,457	263,402
2009	49,773,145	1,168,477 (2.35)	870,636	50,251	247,590
2010	50,515,666	1,261,415 (2.50)	918,917	83,825	258,673
2011	50,734,284	1,395,077 (2.75)	982,461	135,020	277,596
2012	50,948,272	1,445,103 (2.84)	932,983	187,616	324,504
연평균 증가율	0.54	8.88	13.59	26.02	0.06

주: ()는 총인구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연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각월호

적동포 거소신고자의 수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단기체류자의 수는 증가와 감소 추세를 반복하여 일정한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외국인은 17.8만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대비 약 12.31% 규모이다. 이는 2001년 불법체류외국인 비중이 48.10%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약 3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체류외국인 중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에서는 취업자격 외국인을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등의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전문인력으로 분류되며, 연

표 3. 불법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총인구	불법체류외국인		외국인노동자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단기체류자
2001	566,835	272,626	(48.10)	67,064	0	205,562
2002	629,006	308,165	(48.99)	83,779	0	224,386
2003	678,687	154,342	(22.74)	72,500	0	81,842
2004	750,873	209,841	(27.95)	89,857	768	119,216
2005	747,467	204,254	(27.33)	107,049	832	96,373
2006	910,149	211,988	(23.29)	106,657	1,496	103,835
2007	1,066,273	223,464	(20.96)	107,278	1,891	114,295
2008	1,158,866	200,489	(17.30)	93,461	542	106,486
2009	1,168,477	177,955	(15.23)	83,729	613	93,613
2010	1,261,415	168,515	(13.36)	78,545	732	89,238
2011	1,395,077	167,780	(12.03)	82,848	578	84,354
2012	1,445,103	177,854	(12.31)	92,562	1,579	83,713
연평균 증감율	8.88	-3.81		-11.65	9.43	-7.84

주: ()는 체류외국인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연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각월호

수취업(E-8), 비전문직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인 단순기능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취업자격외국인의 수는 약 53.0만명으로 체류외국인 중 약 36.65% 규모이다. 이 중 전문인력은 약 5.0만명이며, 단순기능인력은 47.9만명이다. 2007년 이후 취업자격 외국인은 연평균 2.11% 증가하여, 전체 체류외국인 증가율 6.27%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체류외국인 중 취업자격외국인의 비중은 2007년 44.76%에서 2012년 36.65%로 감소하였다. 취업자격자 중 전문인력 2007~2012년 기간 중 연평균 7.79% 증가하였고, 단순기능인력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61% 증가하였다.

표 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체류외국인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6.27
취업자격외국인	477,215 (44.76)	549,510 (47.42)	552,573 (47.29)	557,941 (44.23)	595,098 (42.66)	529,690 (36.65)	2.11
전문인력	34,538	38,261	41,413	44,320	47,774	50,264	7.79
단기취업(C-4)	1,036	957	715	712	679	377	-18.30
교수(E-1)	1,279	1,589	2,056	2,266	2,474	2,631	15.52
회화지도(E-2)	17,721	19,771	22,642	23,317	22,541	21,603	4.04
연구(E-3)	2,318	2,057	2,066	2,324	2,606	2,820	4.00
기술지도(E-4)	174	121	197	233	202	160	-1.66
전문직업(E-5)	414	530	536	594	629	694	10.88
예술행행(E-6)	4,421	4,831	4,305	4,162	4,246	4,528	0.48
특정활동(E-7)	7,175	8,405	8,896	10,712	14,397	17,451	19.45
단순기능인력	442,677	511,249	511,160	513,621	547,324	479,426	1.61
연수취업(E-8)	36,090	16,826	11,307	-	-	-	-
비전문직업(E-9)	175,001	190,777	188,363	220,319	234,295	230,237	5.64
선원취업(E-10)	2,900	4,314	5,207	6,716	9,661	10,424	29.16
방문취업(H-2)	228,686	299,332	306,283	286,586	303,368	238,765	0.87

주: ()는 체류외국인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연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각월호

한편 2007~2012년 기간 중 단순기능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2012년 방문취업자 수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2007~2011년 기간 중 취업자격 외국인,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각각 5.67%, 8.45%, 5.45%의 값을 갖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취업자격외국인의 증가율이 전체 외국인 증가율보다 낮고, 취업자격 외국인 중에서는 전문인력의 증가율이 단순기능인력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처럼 전문인력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격외국인 중 전문인력의 비중은 여전히 1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4. 외국인노동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방법

(1) 외국인노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외국인노동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노동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이 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외국인 노동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및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경로이다. 두 번째 경로는 노동시장에 투입된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의 일부분을 소비에 사용할 때, 최종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과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경로이다.

(2) 외국인 노동공급의 경제적 효과 분석⁷⁾

본 연구에서 외국인노동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산업연관분석이다. 산업연관분석은 경제 내에서 투입과 산출 혹은 총공급과

7 분석방법은 주무현 외(2010)의 방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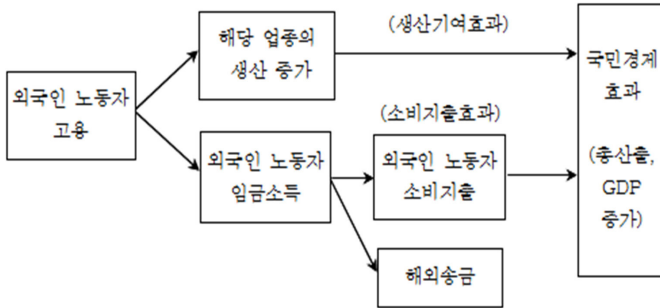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 발생과정

자료: 강동관·이해춘·이규용(2010)

총수요가 일치한다는 완전경쟁균형을 전제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산업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구조 분석방법이다. 특히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부문으로 세분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상호연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즉, 특정 분야 정부지출의 변화가 다른 정부부문을 포함한 각 산업의 생산 활동 및 부가가치 창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⁸

경제 내에 n 개의 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산업연관표의 각 행은 i 부문 생산물에 대한 수요구조를 보여준다. i 산업부문에서 j 산업부문으로 투입된 투입금액을 의미하는 X_{ij} 를 행방향으로 보면 j 부문 산업이 생산을 위해 i 부문 생산물을 얼마나 수요하고 있

8 산업연관분석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각 산업별로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투입물(원재료)과 원초적 생산요소(노동, 자본), 그리고 각 산업별 생산물에 대한 산업별 중간수요와 최종수요가 일정한 비율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고정투입계수와 고정산출계수를 가정하고 있어, 각 산업별 투입요소의 변화 및 최종수요의 변화에 따른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정투입계수의 가정 때문에 투입물간 혹은 특정 재화 수요 간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 실업 등 불완전경쟁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경제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분석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내외적인 충격에 대한 산업별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주무현 외, 2010, pp.75~77)

는지를 보여준다. 이 때 X_{ij} 를 각 행별로 더한 총합은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i 부문 생산물의 규모를 보여준다. 이를 산업연관분석에서는 i 부문 생산물에 대한 중간수요라고 정의한다. Y_i 는 최종수요로 i 부문의 생산물이 민간소비, 정부소비, 민간투자, 정부투자, 순수출(=수출-수입) 등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총산출은 i 분야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총산출 규모로, i 부문 생산물에 대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를 더한 총수요에서 i 부문 생산물에 대한 수입수요(=수입중간수요+수입최종수요)를 제한 금액이 된다.

산업연관표의 각 열은 j 부문 생산을 위한 투입구조를 보여준다. 우선 X_{ij} 는 j 부문 생산을 위해 i 부문의 생산물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때 X_{ij} 를 각 열별로 더한 총합은 중간투입으로 정의된다. V_j 는 j 부문의 부가가치로 j 부문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세, 보조금 등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보여준다. X_{ij} 와 V_j 의 총합은 총투입이 되며, 이는 총산출과 같다.

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외국인 노동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 및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급유도형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공급유도형 산업연관분석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 및 보조금 등의 변화 혹은 이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공급유도형 산업연관분석의

		중간수요(j)				최종수요	총산출액 $i(=j)$
		1	2 j	n		
중간 투입 (i)	1	X_{11}	X_{12} X_{1j}	X_{1n}	Y_1	X_1
	2	X_{21}	X_{22} X_{2j}	X_{2n}	Y_2	X_2
	i	X_{i1}	X_{i2} X_{ij}	X_{in}	Y_i	X_i
	n	X_{n1}	X_{n2} X_{nj}	X_{nn}	Y_n	X_n
부가가치		V_1	V_2 V_j	V_n		
총투입액 $j(=i)$		X_1	X_2 X_j	X_n		

그림 2. 산업연관표의 기본 구조

기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업연관표에서 j 부문의 투입구조인 열(column) 방향으로 보면, 중간투입(X_{ij})+부가가치(V_j)=총투입(X_j)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b_{ij}=X_{ij}/X_j$ 라고 정의하면 중간투입, 부가가치, 총투입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 체계로 나타낼 수 있다.

$$b_{11}X_1+b_{21}X_2+\dots+b_{n1}X_n+V_1=X_1$$

...

$$b_{n1}X_1+b_{2n}X_2+\dots+b_{nn}X_n+V_n=X_n$$

이 연립방정식체계는 행렬형태로 간단히 $BX+V=X$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B 는 계수행렬, V 는 부가가치 벡터, X 는 총투입벡터가 되며, 이를 전개하여 X 에 대해 풀면 $X=(I-B)^{-1}V$ 와 같이 된다. 이때 $(I-B)^{-1}$ 은 부가가치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산업 부문에서 생산이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효과를 나타내주는 계수이다.⁹ 이 식으로 부가가치의 변화가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X=(I-B)^{-1}V$ 는 부가가치 부문의 분해를 통해 노동투입 변동에 의한 총생산 변동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우선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노동분배몫, V_L)과 그 외 분배몫(편의상 자본분배몫으로 정의, V_K)으로 구분할 수 있다.

$$V=V_L+V_K$$

노동의 부가가치=고용자 수(L_j^j)와 임금(W_j)를 곱한 것이라고 정의하면 고용변화에 의한 생산량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9 $(I-B)^{-1}=I+B+B^2+B^3+\dots$ 이 된다. 단위행렬 I 는 각 산업부문 부가가치가 1단위씩 발생할 때, 자기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직접생산효과를 의미하며, B, B^2, B^3 등은 1차, 2차, 3차 생산파급효과로 정의된다. 생산유발과정은 무한으로 반복된다.

$$\Delta X = (I - B)^{-1} \Delta L^V W$$

여기서 ΔL^V 은 각 산업부문에 투입되는 노동투입량을, 그리고 W 는 각 산업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산업부문별 임금수준과 각 산업부문에 투입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알고 있다면, 위의 식을 통해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국내총생산량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총생산의 변화가 부가가치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산업연관분석의 특성상 총생산량의 변화를 측정하면 이를 이용하여 바로 부가가치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3) 외국인노동자 소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¹⁰

산업연관표를 이용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 증가에 따라 생산 및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분석은 최종수요의 증가 혹은 최종수요의 증가를 유발하는 정부정책이 생산과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유용하다.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연관표에서 i 부문의 수요구조인 행방향으로 보면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은 총산출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a_{ij} = X_{ij} / X_j$ 라고 정의하면 아래와 같은 연립방정식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a_{ij} 는 j 산업 생산물인 X_j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i 산업의 생산물을 의미하는 투입계수이다.

$$a_{11}X_1 + a_{12}X_2 + \dots + a_{1n}X_n + Y_1 = X_1$$

...

$$a_{n1}X_1 + a_{n2}X_2 + \dots + a_{nn}X_n + Y_n = X_n$$

A 를 투입계수행렬, X 를 총산출액 벡터, Y 를 최종수요벡터라고 정의하면,

10 분석방법은 주무현 외(2010)의 방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위의 연립방정식은 $AX+Y+X$ 와 같은 형태의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X 에 대해 풀면 $X=(I-A)^{-1}Y$ 와 같아진다. 이때 $(I-A)^{-1}$ 는 생산유발 계수로, 각 산업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 산업에서 나타나는 직·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보여준다.

위의 $X=(I-A)^{-1}Y$ 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 변화가 전 산업에 걸쳐 유발하는 생산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생산이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산업연관 분석의 특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2) 자료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가용한 가장 최근 산업연관표인 2010년 산업연관표 연장표의 통합대분류 자료를 사용한다.¹¹ 통합대분류자료에서는 전체 산업을 28개로 분류하고 있다.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해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지급된 피용자보수액에 대한 정보와, 외국인노동자의 최종소비지출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먼저 외국인노동자의 피용자보수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수와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세분하여 구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합법체류자 50만 6,876명과 불법체류자 5만 1,065명을 합하여 55만 7,941명이며, 이 중 전문인력은 4만 4,320명, 단순기능인력은 51만 3,621명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규용·박성재(2008) 등의 연구결과를 따라 비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상당수가 실제 노동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비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순기능인력으로 노동활동을 하고 있을

11 산업연관표는 5년에 한번 실측표를 만들며, 이후 5년은 실측표를 이용한 연장표를 만든다. 현재 가용한 최근 실측표는 2005년 산업연관표이며, 2010년 실측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2010년 현재 비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총 70만 3,474명으로 이 중 합법체류자는 58만 6,024명이며, 불법체류자는 11만 7,450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기준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으로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4만 4,320명이며, 단순기능인력으로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취업자격 단순기능인력과 비취업자격 불법체류자를 합한 63만 1,071명으로 추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산업별로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공식통계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구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동관 외(2011)와 외국인노동자의 산업별 배분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임금자료는 임금자료는 강동관 외(2011)의 자료를 2010년 기준으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구한 산업별 외국인노동자의 수와 평균임금은 표 5와 같다.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에 따른 분석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 임금소득 중 소비지출에 사용되는 금액을 파악해야 하며, 적절한 가정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이 각 산업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선 외(2010)의 연구결과에 따라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소득의 21.3%를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소비지출의 산업별 배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추정과정이 필요하다. 강동관 외(2011)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 구조가 우리나라 하위 20%의 지출구조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가계동향조사 상의 항목별 소비지출을 산업별로 배분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강동관 외(2011)의 연구방법을 따르되,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구조가 우리나라 하위 20%의 소비지출구조를 따른다는 가정을 보다 현실적인 가정으로 바꾸었다. 또한 가계동향조사 상의 항목별 소비지출을 산업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소비지출구조가 하위 20%의 소비지출구조를 따른다는 가정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소득 및 평균 소비지출액과 2010년 기준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득분위별 평균소득 및 평균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소득은 전문인력의 경우 3,600

표 5. 산업별 외국인노동자수 및 연평균임금

(단위: 명, 만원)

분류	부문명칭	취업자수	피고용자수	외국인노동자				
				인원			연평균임금	
				전문	단순	총계	전문	단순
1	농림수산물	1,584,765	190,204	62	15391	15453	3,643	1,896
2	광산품	15,450	14,167	1	322	323	3,643	1,896
3	음식료품	279,382	207,821	257	16205	16462	3,697	1,940
4	섬유 및 가죽제품	316,030	262,392	670	46716	47386	3,413	1,792
5	목재 및 종이제품	102,416	91,689	133	17867	18000	3,278	1,896
6	인쇄 및 복제	70,841	52,711	171	6448	6619	3,825	1,721
7	석유 및 석탄제품	18,908	18,699	12	154	166	3,781	1,985
8	화학제품	398,805	380,477	345	17500	17845	3,781	1,985
9	비금속광물제품	104,331	97,204	696	59277	59973	3,605	1,892
10	제1차금속제품	155,904	151,235	314	18806	19120	3,854	2,024
11	금속제품	400,191	341,875	478	55082	55560	3,805	1,997
12	일반기계	427,153	392,007	498	38284	38782	3,896	2,045
13	전기 및 전자기기	648,345	628,669	1348	34769	36117	4,087	2,146
14	정밀기기	88,085	82,381	131	2171	2302	2,855	1,498
15	수송장비	445,821	438,283	2525	51086	53611	3,761	1,974
16	기타제조업제품	110,896	85,744	178	20420	20598	3,373	1,651
17	전력, 가스 및 수도	68,760	68,728	16	191	207	3,643	1,896
18	건설	1,602,686	1,556,835	2635	103405	106040	3,643	1,896
19	도소매	3,213,818	1,518,278	2037	4758	6795	3,643	1,896
20	음식점 및 숙박	1,673,930	814,534	4812	95371	100183	3,643	1,896
21	운수 및 보관	1,020,788	706,063	672	970	1642	3,643	1,896
22	통신 및 방송	157,685	155,046	46	12	58	3,643	1,896
23	금융 및 보험	679,389	674,035	452	51	503	3,643	1,896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153,783	1,980,294	3653	4995	8648	3,643	1,896
25	공공행정 및 국방	845,515	845,515	443	76	519	3,643	1,896
26	교육 및 보건	2,575,321	2,344,285	19602	399	20001	3,643	1,896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195,613	731,904	2133	20345	22478	3,643	1,896
28	기타	0	0	0	0	0	3,643	1,896
전 산업		20,354,611	14,831,075	44320	631071	675391	-	-

주: 취업자는 피고용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만원 수준, 단순기능인력은 1,900만원 수준이다. 전문인력의 연평균임금소득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3,662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소득분위로 보면 하위 50~60%가구의 평균소득 3,564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대략 경상소득 기준 소득 하위 20~30% 가구의 평균소득 1,788만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정기선 외(2010)의 분석에 따라 외국인노동자가 소득의 21.3%를 소비한다고 가정할 경우, 외국인노동자 중 전문인력의 소비지출규모는 연평균 약 776만원이고, 단순기능인력의 소비지출규모는 연평균 약 404만원이 된다.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연평균 소비지출액은 약 779만원이다. 즉, 전문인력의 경우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와 비슷한 수준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이보다도 낮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비지출구조가 유사하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소비지출구조는 가구원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노동자의 가구원수와 하위 10% 가구의 평균가구원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구조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비지출구조가 유사하다는 가정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가구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38명이다.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체로 1인가구 혹은 2인가구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계동향조사 상 하위 10%의 가구구조는 외국인노동자 가구의 가구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상에서는 소비지출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 12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분류를 산업연관표 상의 28개 대분류 산업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관 외(2011)에서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주류 및 담배는 음식료품 산업에, 의류 및 신발은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에 배분하는 등 대부분의 소비항목을 그대로 유사한 산업에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배분 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일례(一例)로 가계동향조사 상의 음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소비지출 중 가공하지

표 6. 소득분위별 가계수지 및 평균가구원수(전국 1인 이상 가구)

(단위: 만원, 명)

	경상소득	소비지출	가구원수
1분위	437	779	1.38
2분위	1,136	1,126	1.82
3분위	1,788	1,451	2.21
4분위	2,407	1,875	2.64
5분위	3,001	2,201	3.07
6분위	3,564	2,524	3.22
7분위	4,166	2,804	3.39
8분위	4,954	3,147	3.54
9분위	6,056	3,594	3.53
10분위	8,962	4,485	3.66

자료: 2010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

않은 신선수산물, 과일, 채소 등은 산업연관표 상 농림수산업의 최종소비지출에 포함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상의 소비지출의 세부내용과 산업연관표의 산업분류를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비항목을 28개 산업에 배분하였다.¹²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구한 산업별 소비지출비중과 외국인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의 산업별 최종소비지출액은 표 7과 같다.

3) 분석결과

표 8은 외국인노동자로 인해 유발되는 총생산 및 부가가치 규모를 측정한 결과이다. 외국인노동자 중 전문인력의 노동공급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총생산은 2조 9,556억원이며, 단순기능인력의 노동공급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총생산은 31조 2,807억원으로 계산되었다. 외국인노동자 중 전문인력의 노동공급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1조 2,791억원이며, 단순기능인력

12 자세한 배분 기준은 부록에 소개하였다.

표 7. 외국인노동자의 산업별 최종소비지출액 추정치

(단위: 백만원, %)

분류	부문명칭	산업별 최종소비비중	전문인력	단순기능
1	농림수산물	8.455	31,707	236,927
2	광산물	0.000	0	0
3	음식료품	16.392	61,470	459,326
4	섬유 및 가죽제품	4.310	16,164	120,782
5	목재 및 종이제품	0.271	1,018	7,604
6	인쇄 및 복제	0.000	0	0
7	석유 및 석탄제품	10.616	39,810	297,472
8	화학제품	1.728	6,480	48,419
9	비금속광물제품	0.000	0	0
10	제1차금속제품	0.000	0	0
11	금속제품	0.136	511	3,821
12	일반기계	0.000	0	0
13	전기 및 전자기기	1.978	7,420	55,442
14	정밀기기	1.140	4,277	31,959
15	수송장비	0.015	56	419
16	기타제조업제품	1.999	7,497	56,020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193	4,473	33,423
18	건설	1.880	7,049	52,671
19	도소매	0.001	4	27
20	음식점 및 숙박	6.531	24,493	183,019
21	운수 및 보관	3.305	12,393	92,605
22	통신 및 방송	5.286	19,822	148,115
23	금융 및 보험	0.973	3,650	27,275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180	34,426	257,244
25	공공행정 및 국방	0.000	0	0
26	교육 및 보건	16.971	63,644	475,571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7.639	28,649	214,073
28	기타	0.000	0	0
합계		100.000	375,010	2,802,214

주: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총액은 전문인력은 1조 6,234억원, 단순기능인력은 12조 1,308억원이다. 소비지출추정치는 이중 21.3%를 소비한다는 가정하에 추정되었다.

표 8. 외국인노동자의 산업별 총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억원)

분류	부문명칭	외국인 노동공급의 효과				외국인 소비지출의 효과			
		총생산		부가가치		총생산		부가가치	
		전문	단순	전문	단순	전문	단순	전문	단순
1	농림수산물	75	9,698	28	3,623	590	4,408	260	1,945
2	광산물	54	9,080	15	2,526	0	0	0	0
3	음식료품	246	8,136	73	2,412	1,312	9,804	434	3,245
4	섬유 및 가죽제품	500	18,305	152	5,560	324	2,419	102	760
5	목재 및 종이제품	208	16,122	63	4,885	20	150	6	44
6	인쇄 및 복제	230	3,900	91	1,543	0	0	0	0
7	석유 및 석탄제품	18	120	5	33	487	3,641	112	833
8	화학제품	503	13,383	133	3,535	131	977	32	241
9	비금속광물제품	881	39,375	265	11,865	0	0	0	0
10	제1차 금속제품	606	19,051	138	4,343	0	0	0	0
11	금속제품	547	33,096	163	9,864	12	91	3	25
12	일반기계	471	19,003	131	5,295	0	0	0	0
13	전기 및 전자기기	1,279	17,328	316	4,276	148	1,104	39	290
14	정밀기기	111	963	33	291	89	663	27	199
15	수송장비	1,768	18,773	473	5,028	1	10	0	3
16	기타제조업제품	143	8,017	44	2,480	167	1,249	49	367
17	전력, 가스 및 수도	20	124	6	39	66	494	21	154
18	건설	1,099	22,437	448	9,145	148	1,108	53	394
19	도소매	1,803	2,192	750	911	0	0	0	0
20	음식점 및 숙박	4,254	43,876	1,390	14,343	505	3,770	192	1,431
21	운수 및 보관	804	604	269	202	197	1,468	70	519
22	통신 및 방송	44	6	19	3	373	2,788	166	1,241
23	금융 및 보험	454	27	213	12	62	465	34	251
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514	2,501	1,671	1,189	541	4,046	311	2,322
25	공공행정 및 국방	171	15	112	10	0	0	0	0
26	교육 및 보건	8,429	89	5,199	55	1,014	7,576	551	4,118
27	사회 및 기타서비스	1,327	6,588	591	2,933	552	4,128	240	1,794
28	기타	0	0	0	0	0	0	0	0
합계		29,556	312,807	12,791	96,402	6,740	50,361	2,700	20,175

의 노동공급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9조 6,402억원이다.

전문인력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총생산은 6,740 억원이고, 단순기능인력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총 생산은 5조 361억원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전문인력 외국인노동자의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2,700억원, 단순기능인력 외국인노 동자의 소비지출 증가로 인해 유발되는 부가가치는 2조 175억원으로 측정되 었다.

산업별로 보면 외국인 노동공급에 의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 문인력의 경우 교육 및 보건산업, 음식점 및 숙박업, 그리고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음식점과 숙박,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건설업 등에서 크게 나타 났다. 이는 해당 분야 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투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 소비지출에 의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문인력의 경우 음식료품과 교육 및 보건산업 소 비지출에 의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관련 산업의 최종소비지출 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표 9는 외국인노동자의 총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3조 6,296억원으 로 산업에서의 총산출액 3,124조 374억원 대비 약 0.12%이며, 외국인 단순 능력인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36조 3,169억원으로 총산출액 대비 1.16%이 다. 전문인력과 단순능력인원을 합한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총 생산유발효과 는 39조 9,464억원으로 총산출대비 1.28%이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부가가 치 유발효과는 총 1조 5,491억원으로 산업에서의 총 부가가치 1,152조 5,808 억원 대비 약 0.13%이며, 외국인 단순능력인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11조 6,577억원으로 총 부가가치 대비 1.01%이다. 전문인력과 단순능력인원 을 합한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총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조 2,068억원으로 총 부가가치대비 1.15%이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

표 9. 외국인노동자의 총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억원, %)

	생산유발			부가가치		
	전문	단순	합계	전문	단순	합계
노동자 고용의 효과(a)	29,556	312,807	342,363	12,791	96,402	109,192
노동자의 소비지출효과(b)	6,740	50,361	57,101	2,700	20,175	22,875
총효과(c=a+b)	36,296	363,169	399,464	15,491	116,577	132,068
총산출 및 부가가치(d)	31,240,374			11,525,808		
비중(c/d)	0.12	1.16	1.28	0.13	1.01	1.15

표 10. 내국인노동자의 총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억원, %)

	생산유발	부가가치 유발
노동자 고용의 효과(a)	12,290,124	4,777,006
노동자의 소비지출효과(b)	6,065,750	2,417,477
총효과(c=a+b)	18,355,875	7,194,483
총산출 및 부가가치(d)	31,240,374	11,525,808
비중(c/d)	58.76	62.42

자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내국인노동자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국인노동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측정한 후, 이를 토대로 내국인노동자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측정하여 외국인노동자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비교하였다.¹³

표 10은 내국인노동자의 총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측정한 결과이다. 내국인노동자의 생산유발액은 1,835조 5,875억원으로 총생산 대비 약 58.76%로 측정되었으며, 내국인노동자의 부가가치 유발액은 719조 4,483억원으로 부가가치 대비 62.42억원으로 측정되었다.

13 내국인노동자의 경우 가계소득의 약 65.3%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볼 때 가구의 경상소득대비 소비지출비중이 65.3%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국인노동자의 평균적인 소비지출구조는 가계동향조사 상의 평균적인 소비지출구조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표 11. 내·외국인노동자 1인당 총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단위: 백만원)

	외국인노동자						내국인노동자	
	생산			부가가치			생산	부가가치
	전문	단순	합계	전문	단순	합계		
노동자 고용의 효과	66.7	49.6	50.7	28.9	15.3	16.2	86.8	33.7
노동자의 소비지출효과	15.2	8.0	8.5	6.1	3.2	3.4	42.9	17.1
총효과	81.9	57.5	59.1	35.0	18.5	19.6	129.7	50.8

표 11은 내국인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의 1인당 총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국인노동자의 1인당 생산효과는 약 1억 2,970만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080억원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전문인력은 1인당 총생산효과가 8,190만원, 1인당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500만원으로 측정되었고, 단순기능인력은 1인당 총생산효과가 5,750만원, 1인당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850만원으로 측정되었다. 외국인노동자 전체의 1인당 평균 생산유발효과는 5,910만원, 그리고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60만원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볼 때 외국인노동자의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작았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노동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 고용으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고용에 의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규모가 내국인노동자 대비 약 57.1%, 45.4%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의 경우 고용에 의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규모가 내국인노동자 대비 약 76.8%, 85.8% 수준이었다. 두 번째는 외국인노동자의 소비지출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65.3%를 소비한다고 가정하는데 비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21.3%를 소비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처럼 1인당 소비지출액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외국인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일부 직종에서의 지속적인 초과노동수요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공급이 정책당국에서 바라는 바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기준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 경제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총생산 유발효과는 39조 9,464억원으로 국가 전체 총산출액 대비 약 1.28% 수준이며, 부가가치 유발규모는 총 11조 6,577억원으로 국가전체 총산출액 대비 1.15% 수준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를 전문인력과 단순기능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단순기능인력이 전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난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3조 6,296억원으로 산업에서의 총산출액 대비 약 0.12%이며, 외국인 단순능력인원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36조 3,169억원으로 총산출액 대비 1.16%으로 측정되었다. 부가가치 측면을 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1조 5,491억원으로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대비 약 0.13%수준이며, 외국인 단순능력인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총 11조 6,577억원으로 총 부가가치 대비 1.01% 수준이다. 이처럼 단순기능인력이 총생산 및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으로 인해 단순기능인력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다.

셋째,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비교해 보면, 외국인 전문인력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1인당 8,190만원의 생산과 3,25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지만, 외국인 단순기능인력은 1인당 5,750만원의 생산과 1,850만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노동자 1인당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낮았다. 분석에 따르면 내국인노동자의 1인당 생산효과는 약 1억 2,970만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5,080억원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전문인력은 1인당 총생산효과가 8,190만원, 1인당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500만원으로 측정되었고, 단순기능인력은 1인당 총생산효과가 5,750만원, 1인당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850만원으로 측정되었다. 외국인노동자 전체의 1인당 평균 생산유발효과는 5,910만원, 그리고 1인당 평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60만원으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분석 및 기존 연구 검토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단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국인노동자의 경우 국가 전체 경제에 약 1%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기여도는 주로 유입되고 있는 단순기능인력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단순기능인력의 도입이 국내 노동자의 고용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노동자 대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노동자가 생산과정에 투입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인노동자 투입으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존재하는 대신 내국인노동자의 이탈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감소 효과가 존재할 것이며, 노동 간 대체성이 높을 경우 후자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장에서 검토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단순기능인력 도입에 따른 노동 간 대체성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체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소비를 통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작은 것은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상당부분은 자국으로 보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노동공급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내국인노동자에 비해 작은 것은 외국인노동자의 생산성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기능인력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내국인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울(2011), 전영준(2012) 등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납부세금 이상의 공공재와 복지급여를 누려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적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경제에서 이자율을 높여 민간경제를 구축하는 등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산성이 높은 전문인력 중심의 유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인력 중심의 유입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숙련노동과 내국인 숙련노동 간의 대체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내국인노동자 1인당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에 미치지 못하였다. 단,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이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내국인 단순기능인력보다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고, 내국인 전문인력보다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작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만일 외국인 전문인력이 내국인 전문인력을 대체하는 비율이 높다면, 외국인 숙련노동의 도입은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외국인 노동 간 대체성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이 단순기능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전문인력과 내국인 전문인력 간의 대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

국인 전문인력의 경우 직종별로 분류하여 도입여부를 판단하거나, 단기간에 내국인 충원이 힘든 직종과 고급인력에 대한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김연수(2013)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04.26 접수, 2013.05.30 수정, 2013.06.28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동관·이해춘·이규용, 2011,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IOM 이민정책 연구원 워킹페이퍼시리즈 No.2011-08.
- 강동관·문석용·이해춘, 2012, CGE모형을 이용한 외국인력 도입의 경제적 효과,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시리즈 No.2012-05.
- 김연수, 2013, 외국인력 도입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 KDI 정책포럼, 제255호, 한국개발연구원.
- 김정호, 2009,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09-15, 한국개발연구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연도.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각월호.
- 유영준·이규용, 2009,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과제, 정책연구시리즈, 2009-04, 한국개발연구원.
- 이규용·박성재·김선웅·노용진·김재훈, 2005,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율, 2011, 국제적 노동이동의 경제적 효과, 사회과학논총 제30집 제1호, 203-219.
- 전영준, 2012, 인구고령화, 공공이전, 이민정책의 경제성장효과-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재정학연구 제5권 제2호(통권제73호), 91-130.
- 정기선·강동관·김석호·설동훈·이규용, 2010, 2010 체류외국인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법무부 용역보고서 No. 2010-03.
- 조준모, 2004, 외국인력의 내국인력에 대한 대체성 분석, 유길상 외 저숙련외국인력노동 시장 분석 제5장, 한국노동연구원.
- 주무현·이해춘·전용석·백광호, 2010, 경제·산업정책 및 주요 재정사업의 고용효과 예측 방법론 연구,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 최경수, 2011, 이민 및 외국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중장기효과, 정책연구시리즈

2011-09, 한국개발연구원.

한진희·최용석, 2006,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영향분석: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제28권, 제1호, 95-116.

An, Chong-Bum and Seung-Hoon Jeon, 2006, Demographic Changes and Economic Growth: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Economics Letters*, 92(3), 447-454.

Boerch-Supan, A. H., 2001, Labor Market Effects of Population Aging, NBER working paper series No.8640, 2001.

Borjas, G. J. 2003. The Labor Demand Curve is Downward Sloping: Reexamin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1335-1374

Bratsberg, B. and O. Raaum, 2010, Immigration and Wages: Evidence from Construction, "CREAM DP No 06/10,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14.

Grossman, J. B. 1982, The Substitutability of Natives and Immigrants in Production,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November, 596-603.

Walmsley Terrie L., and L. Alan Winters, 2005 Relaxing the Restrictions on the Temporar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A Simulation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December.

Walmsley Terrie L., and S. Amer Ahmed and C. R. Parsons, 2009, A Data Base of Bilateral Labor Migration, Wages and Remittances, GTAP Research Memorandum 6, Center for Global Trade Analysis, Purdue Univ. IN. USA.

〈부록〉 가계소비지출의 산업별 배분

가계동향조사 지출분류		산업연표 28개 산업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공하지 않은 신선 수산물, 과일, 채소 등	농림수산업
	그 외 지출	음식료품 산업
주류·담배		음식료품
의류·신발	의복관련서비스와 신발서비스관련 지출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
	그 외 지출	섬유 및 가죽제품산업
주거·수도·광열비	실제주거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
	주택유지 및 수선	건설산업
	상하수도료	전력, 가스 및 수도 산업
	쓰레기처리	교육 및 보건 산업
	기타주거관련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산업
	연료비	석유 및 석탄제품산업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가구	기타제조업품
	중고가구	도소매 산업
	조명가구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와 가정용섬유	섬유 및 가죽제품 산업
	가전 및 가정용기기와 가전관련서비스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가사용품	기타제조업품 산업
	건전지를 제외한 가정용공구 및 기타소비지출	금속제품 산업
	건전지와 전구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세탁용세제, 주방 및 청소용세제 등	화학제품 산업
	세탁 청소용구 및 기타가사소모품	기타제조업품 산업
	가사서비스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
	보건	보건의료용품 및 가구
그 외 지출		교육 및 보건산업
교통비	신차 구입,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구입	수송장비 산업
	중고차구입	도소매 산업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 기타개인교통서비스 등	사회 및 기타서비스 산업
	운송기구 연료비	석유 및 석탄산업
	그 외 교통관련 지출	운송 및 보관 산업
	운전교습비	교육 및 보건사업
통신비	우편서비스와 통신서비스	우편 및 통신산업
	통신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가계동향조사 지출분류		산업연관표 28개 산업
오락·문화비	영상음향기기,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
	사진광학장비	정밀기기
	악기, 오락 및 운동내구재 등 각종 취미용품	기타제조업
	운동·오락·문화서비스, 복권, 서적, 출판물 등	사회 및 기타서비스
	단체여행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문구류 중에 종이문구류	목재 및 종이제품
교육비	교육 및 보건산업	
음식·숙박비	음식 및 숙박산업	
기타상품·서비스	이미용기기	전기 및 전자기기 산업
	위생 및 이미용용품	화학제품 산업
	화장지	목재 및 종이제품 산업
	시계 및 장신구	정밀기기 산업
	보험 및 기타금융	보험 및 금융 산업
	그 외 지출	사회 및 기타서비스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s of Foreign Labor Inflows in Korea

Seung-Hoon Jeon*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impacts of Foreign Labor Inflow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2010 Input-Output data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total production induced by foreign labor inflows is about 39.9 trillion won in 2010, which amounts to 1.28% of the total output in Korea. The total value-added inducement generated by foreign labor inflows is about 11.7 trillion won, which amounts to 1.15% for the total value-added as a whole. These imply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foreign laborers to the Korean economy cannot be ignored. Compared to the domestic laborers', the foreign laborers' productivity is still quite low, particularly for the unskilled foreign laborer. Per capita contributions to the production as well as value added are 81.9 million won and 35.0 million won for the skilled, and 57.5 million won and 18.5 million won for the unskilled, respectively. Per capita contributions of domestic laborer to the production and value added are 129.7 million won and 50.8 million won,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current policy for foreign labor with respect economic growth has a room for further improvement, especially by accepting more the skilled laborers.

Keywords Foreign Labor, Input-Output Analysis, Products induced effect, Value Added induced effect.

* Daegu University, Economics, jsh1105@daegu.ac.kr